

귀국한 文대통령에 쏠리는 시선

# 북미대화 중재 적극 나서나



아세안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아세안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하루를 쉬면서 국정 구상에 몰두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한다. 참모들로부터 순방기간 쌓인 국내·외 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문서 형태로 챙길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직접 주재하던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하기로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된 최 부상의 발언을 봤다"며 "(북한은) 향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최 부상의 발언은 "북미 지도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한 대목이다. 비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만간 핵·미사일 시험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지만 두 정상 간의 관계까지는 완전히 틀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양측이 어쨌든 두 정상과의 관계나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면을 감안해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복기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략적 판단과 문 대통령의 추후 행보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플랜'(Action plan·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7일 정세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정확한 반응과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그 판단에 따라 액션 플랜이 정해질 것이고, 그것이 시시화 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보름간의 침묵을 깨고 공식 반응을 내놓은 만큼 문 대통령의 본격적인 중재 구상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중재 방안이 문 대통령의 여전한 고민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인력의 공통된 인식이다. 협상 재개를 둘러싼 북미 간 인식 차를 좁힐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위태롭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3주간은 문 대통령의 임기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였을 수 있다"며 "북미협상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 간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tbs라디오 김여준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우리(남북)는 비공개 접촉을 할 수 있는 루트와 채널이 있다. 판문점에서라도 빨리 김영철을 불러내든지 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설득을 해야 한다고 "서울 국가정보원장이 조금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 어느 쪽을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는 전체 상황을 봐야한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 의사 확인을 위한 접촉을(우선) 타진 중이다. 북한의 향후 계획, 최 부상의 기자회견 의미 등을 들여다봐 북미 간 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 바른미래 "대정부 질문서 文정부 무능 날낫이 파헤칠 것"

### "만기친람 특혜 필요...대통령 인사철학 변화야"

바른미래당은 16일 오후 19일부 터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패 실상을 날낫이 파헤치고 시정 과 해법을 요구하며 합당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고 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최악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허상을 정면으로 보여준다"며 "민

간의 숨통을 트이지 않고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문재인 식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내각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만기친람 청와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 등 청와대가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내로남불 신적폐의 진원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3년이 불안하다"며 "도를 넘은 낙하산 인사 등 대통령의 인사 철학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 탈원전 등 각종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의 책임을 따지고 해법을 요구하겠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선 남북갈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합의의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과 미투법 등이 국회는 물론 정부를 통해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순환국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비선먼저' 법정부 대법기구가 올바르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대책 등도 꼼꼼히 따지겠다"고 다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자신감 회복한 한국당...갈수록 수위 높이는 대여 공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거침 없는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한

부의 경제정책은 위헌"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을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32.3%를 기록했다. 이는 5·18 망인' 논란이 확산했던 2월2주차(25.2%) 이후 7.1%p 오른 수치다. 1위인 민주당과의 격차도 4.9%p로 비약 좁혔다.

실제 강경 발언들은 지지율 결집에 일부 효과를 준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빗댄 연설을 한 이날(13일)에는 지지율이 32.4%로 상승했다. 특히 보수층 지지율은 11일 58.7%에서 13일 69.5%로 급등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여세를 더욱 물이 가기 위해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일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인 4·3 보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지지층 다지기를 위해서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지지율 상승이 2차 북미회담 결렬 등 외부 요인과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인한 반사 효과에 따른 것으로 긴장감을 늦추진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5·18 폄하' 논란처럼 '국유 행보'와 '지정 불거질 수 있는 '막말' 논란이 대국기 세력 등 보수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중도층 공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강화된 '도로 친박당' 이미지도 지지율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다.

내년 총선 승리에 이어 정권 탈환을 노리는 한국당에게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은 필연 과제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4·3 보궐 선거 이후에는 한국당 지도부가 차츰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북미 즉시 국내·외 현안 보고 받아...액션플랜 구상 오늘 수보회의 주재 대신 중재 행보 구상 시간 활용

### 靑 "북미중재안 마련 위해 北과 물밑접촉 우선 타진"

으로 촉발된 북미 간 움직임을 정밀 분석하며 북미 대화 중재를 위한 구상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휴일에도 급한 일이 있으면 관저로 문서 형태의 참모 보고는 올라간다"며 "순방 기간 누적된 기본적인 현안에, 북한 문제도 걸려 있어 당장 대통령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늦게 청와대로 복귀하자마자 국내·외 현안 보고를 빠짐없이 챙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실 중심으로 15일 이뤄진 최 부상의 기자회견과 그에 따른 미국의 반응 등을 묶어 종합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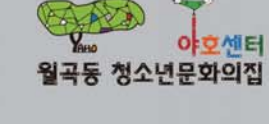
미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최 부상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과 협상을 계속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도 최 부상과 폼페이오 장관이 주고받은 발언 가운데 북미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가 파악해 온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 북미 간 주고 받은 것은 전체 흐름상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냥 밀만 주고받은 상황"이라며 "북미 모두 협상의 필요성 때문에 서로 간에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가 더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협상 재개를 위한 시그널을 북미 양측이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협상 결렬 이후 미국 측의 메시지만 나오다가 북한의 공식반응이 처음 나온 것은 대화 의지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는 게 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